

간호대학생의 낙관성과 진로적응력의 관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김경하[†]

송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2023년 11월 24일 접수: 2023년 12월 27일 수정: 2023년 12월 27일 채택)

The Mediating Effects of Learning Flow between Optimism and Career Adaptability in Nursing Students

Kyung-Ha Kim[†]

Department of Nursing, Songwon University

(Received November 24, 2023; Revised December 27, 2023; Accepted December 26, 2023)

요 약 :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진로적응력을 증진하기 위한 고려로 낙관성과 진로적응력 간 관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 효과를 파악하고자 수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G시와 M시의 4년제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자료는 2023년 4월부터 5월까지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기술적 통계, Pearson 상관계수, Baron과 Kenny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낙관성은 학습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둘째, 낙관성은 진로적응력에 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셋째, 학습몰입은 낙관성과 진로적응력 사이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로써 간호대학생의 진로적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낙관성과 학습몰입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들이 간호교육현장에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낙관성, 학습몰입, 진로적응력, 간호대학생, 매개효과

Abstract :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conducted the mediating effect of learning flow in the relationship between optimism and career adaptability in order to improve the career adaptability of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were students enrolled in the nursing department of 4-year universities in G and M cities. Data were collected from April to May 2023.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Baron and Kenny's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optimism showed a positive effect on learning flow. Second, optimism showed a positive effect on career adaptability. Third, learning flow showe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 between optimism and career adaptability. From this, these

[†]Corresponding author

(E-mail: gh6081@hanmail.net)

* This study is supported by the research fund of Songwon University in 2023(2023-47).

findings suggest that strategies to promote a optimism and learning flow should be operated in order to improve the career adaptability of nursing students in the nursing education field.

Keywords : Optimism, Learning Flow, Career Adaptability, Nursing Students, Mediating Effects

1. 서론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함께 의료 환경의 변화를 초래하고 이는 간호 업무에 영향을 미쳐 기존의 간호 업무와 수행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업무와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1]. 이는 간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와 미래에 간호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간호대학생에게 도전이 되고 있다. 최근 진로발달 연구에서 진로 환경이 보다 더 복잡해지고 불확실하며 예측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이러한 환경에 대처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개인의 역량이 강조되고 있고 [2], 이에 따라 요즘 대두되고 있는 역량이 바로 진로적응력이다. 진로적응력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진로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이 속한 진로 환경의 요구에 대처하는 준비능력으로 [3], 앞으로 다양한 진로 환경에 입문하게 될 대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역량이라 하겠다.

진로적응력은 자신의 진로 환경에 적응하는 심리적 자원이 되며 개인의 개인적 특성과 인지적 능력이 이의 형성에 필요하다 [4]. 개인의 성격 특질 중 하나인 낙관성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상황에 대해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경향성으로 [5], 대학생 대상 연구에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 낙관적 성향을 가진 학생일수록 불확실한 환경에서 직면한 진로장벽에 잘 대처하고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나 낙관성은 진로적응력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6,7]. 현재까지 간호대학생의 낙관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우울, 분노, 스트레스 등 정신 심리 변인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8,9,10], 최근 학업몰입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가 진행되었다 [11]. 낙관성이 대학생의 진로적응력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간호대학생에서도 낙관성이 진로적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유추할 수 있겠으며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겠다.

대학교육에서 모든 학과는 학생이 학과의 교육

과정 이수를 통해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도록 학습현장에서 학생의 몰입을 위해 노력한다. 특히 간호학과의 경우 간호대학생은 4년의 간호교육을 통해 간호교육인증평가원에서 설정한 간호교육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달성해야 하고 [12]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해야 하기 때문에 간호대학생의 학습에 대한 몰입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학습몰입은 학습현장에서 목표한 성과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학생의 정신적인 에너지와 노력으로 [13], 간호대학생에서 높은 학습몰입을 보인 학생이 학업성취도와 임상수행능력이 높았으며 [14, 15], 학습몰입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도 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6]. 학습몰입이 진로발달 관련 변인을 예측하는지에 대한 연구로는 대학생 대상의 연구에서 학습몰입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관여행동, 진로준비행동과 같은 진로목표 달성을 위한 변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7,18,19]. 간호대학생 연구에서는 학습몰입이 진로자아효능감, 진로스트레스와 같은 진로발달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1]. 이렇듯 대학생과 간호대학생에서 학습몰입은 다양한 진로발달 변인을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진로적응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겠으며 이를 실제 확인하는 것은 간호대학생의 진로적응력 증진을 위한 고려로 매우 의미 있다 하겠다.

간호대학생의 진로적응력, 낙관성, 학습몰입에 대한 관계를 확인함에 있어 선행연구를 근거하였을 때 낙관성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습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에서 낙관성은 학습몰입에 직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11]. 앞서 대학생 대상의 연구를 통해 낙관성과 학습몰입이 각각 진로적응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되므로 이에 기초하여 낙관성과 학습몰입이 간호대학생의 진로적응력을 예측하는 변인이 됨을 유추할 수 있고, 더불어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은 낙관성에 영향을 받는 결과 변인이 됨과 동시에 진로적응력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변인이 되므로, 학습몰입이

낙관성과 진로적응력 간 관계에서 매개변인의 효과를 갖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진로적응력 증진을 위해 낙관성, 학습몰입, 진로적응력의 관계를 살펴보고, 낙관성과 진로적응력의 관계에서 학습몰입이 매개변인으로 기능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간호대학생의 진로적응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하며 구체적인 목표는 아래와 같다.

첫째, 대상자의 낙관성, 학습몰입, 진로적응력 간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낙관성과 진로적응력의 관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G시와 M시에 소재한 2개의 4년제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회귀분석에 적절한 표본 크기 산정을 위해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효과크기는 .15, 검정력은 .95, 유의수준은 .05, 예측 변인은 9개로 산출하였다. 산출 결과 총 166개로 확인되어 탈락률과 회수율을 고려하여 195명을 설문 대상자로 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의 설문 중 불성실 응답을 보인 4부를 제외한 후 191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자료수집에 앞서 각 대학의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수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대학과 학과의 절차에 따라 2023년 4월부터 5월까지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로 설문에 앞서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 진행방법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에 연구에 참여할 것을 서면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낙관성

낙관성 측정을 위해 Scheier, Carver와 Bridges [22]가 개발한 ‘삶의 지향검사(Reevaluation of Life Orientation Test)’를 You와 Jo [23]가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6개의 낙관성

측정 문항 중 3개의 부정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낙관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You와 Jo [2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6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8이었다.

2.2.2. 학습몰입

학습몰입을 측정을 위해 Kim, Tack과 Lee [24]가 개발한 성인용 학습몰입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몰입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 Tack과 Lee [2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2이었다.

2.2.3. 진로적응력

진로적응력 측정을 위해 Savickas와 Porfeli [25]가 개발하고 Jeong [26]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4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적응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Jeong [26]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5이었다.

2.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Ver 25.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낙관성, 학습몰입, 진로적응력 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낙관성과 진로적응력의 관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는 Baron과 Kenny [27]가 제시한 3단계 절차를 따라 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결과

3.1.1.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은 여성이 81.2%로 많았으며, 학년은 4학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91)

Characteristics	Range	n(%)
Sex	Female	165(81.2)
	Male	36(18.8)
Grade	2nd	51(26.7)
	3rd	64(33.5)
	4th	76(39.8)
Motive for applying	Aptitude, Interest	53(27.7)
	Stable job	100(52.4)
	Another's advice	38(19.9)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102(53.4)
	Moderate	79(41.4)
	Dissatisfaction	10(05.2)
School life satisfaction	Satisfaction	92(48.2)
	Moderate	88(46.0)
	Dissatisfaction	11(05.8)
Academic performance	≥ 4.0	48(25.1)
	≥ 3.5	79(41.4)
	≥ 3.0	50(26.2)
	≤ 2.9	14(07.3)

Table 2. Correlation among Measurement Variables (N=191)

Variables	1 r(p)	2 r(p)	3 r(p)
Optimism	1		
Learning Flow	.356 (<.001)	1	
Career Adaptability	.577 (<.001)	.635 (<.001)	1

1. Optimism, 2. Learning Flow, 3. Career Adaptability

년이 39.8%로 가장 많았고, 3학년 33.5%, 2학년 26.7% 순을 보였다. 간호학과 지원 동기에 대해서는 안정적 직업이 52.4%로 가장 많아 절반 이상 수준이었으며, 적성과 흥미 27.7%, 주위 권유 19.9%를 보였다. 전공만족은 만족이 53.4%, 보통이 41.4%로 보통 이상이 95%를 차지하여 대상자들이 전반적으로 전공에는 만족하였다. 대학생활 만족은 만족 48.2%, 보통 46.0%로 보통 이상이 94.2% 정도를 보여 대학생활도 전반적으로 만족하였다. 학업 성적(지난 학기 학점)은 3.5-3.9가 41.4%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으며, 3.0-3.4

가 26.2%, 4.0이상 25.1%, 2.9이하 7.3% 순으로 나타났다.

3.1.2. 대상자의 낙관성, 학습몰입, 진로적응력 간 상관관계

본 연구대상자의 낙관성, 학습몰입, 진로적응력 사이의 상관관계는 Table 2와 같다. 낙관성은 학습몰입($r=.356, p<.001$)과 정적상관을, 학습몰입과 진로적응력($r=.635, p<.001$)은 정적상관을, 낙관성과 진로적응력($r=.577, p<.001$)은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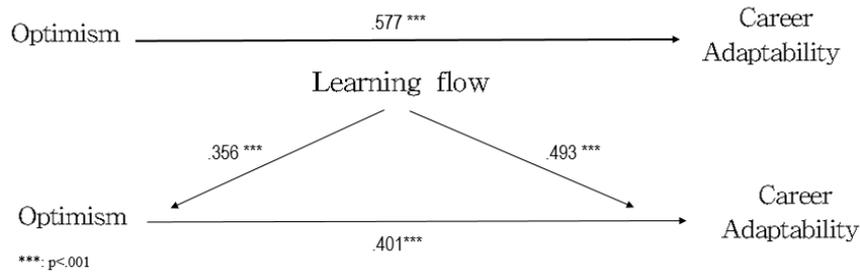


Fig. 1. Mediating effect of learning flow between variables.

Table 3. Mediating effect of learning flow between variables (N=191)

Model	Variables	B	SE	β	t (p)	F (p)	R ²	Durbin Watson
1	Optimism -> Learning Flow	.371	.071	.356	5.235 (<.001)	27.404 (<.001)	.127	-
2	Optimism -> Career Adaptability	.510	.053	.577	9.701 (<.001)	94.105 (<.001)	.332	-
3	Optimism -> Career Adaptability	.355	.047	.401	7.607 (<.001)	112.306 (<.001)	.544	1.874
	Learning Flow -> Career Adaptability	.418	.045	.493	9.352 (<.001)			
Z=4.559(<.001)								

3.1.3. 대상자의 낙관성과 진로적응력의 관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본 연구는 낙관성과 진로적응력의 관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 [25]가 제시한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3에서와 같이 1단계(Model 1)는 낙관성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2단계(Model 2)는 낙관성이 진로적응력에 미치는 영향을, 3단계(Model 3)는 낙관성과 학습몰입이 진로적응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단계에서 낙관성은 학습몰입($\beta=.356, p<.001$)에 정적영향을 미치고 회귀모형($F=27.404,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조건을 충족하였다. 2단계에서 낙관성이 진로적응력($\beta=.577, p<.001$)에 정적영향을 미쳤고 회귀모형($F=94.105,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조건이 충족되었다. 3단계에서 회귀모형($F=112.306,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적합하였고, 낙관성($\beta=.401, p<.001$)과 학습몰입($\beta=.493, p<.001$)은 각각 진로적응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를 살펴보면, 2단계에서 낙관성이 진로적응력에 $\beta=.577(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가졌고, 3단계에서 낙관성이 진로적응력에 $\beta=.401(p<.001)$ 로 2단계보다 값이 감소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동시에 학습몰입도 진로적응력에 $\beta=.493(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결과적으로 학습몰입은 낙관성과 진로적응력 사이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매개효과 크기의 유의성 검증은 Sobel test로 확인하였는데, Fig. 1과 Table 3과 같이 학습몰입은 진로적응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분 매개변수임이 검증되었다($Z=5.365, p<.001$).

3.2. 고찰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진로적응력 증진을 위한 고려로 낙관성이 진로적응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학습몰입이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확인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낙관성, 학습몰입, 진로적응력 사이

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낙관성은 학습몰입과 정적상관을 보여 낙관성이 높은 학생이 학습몰입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대학생 연구인 Kim과 Lee [11]의 연구와 청소년 대상 연구인 Kwon [28]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또한 낙관성은 진로적응력에도 정적상관 보여 낙관성이 높은 학생이 진로적응력 정도가 높았는데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eong [6], Yoo와 Lee [7], Son과 Lee [29]의 연구와 일치하였고, Han [27]의 연구인 비서학 전공 전문대학생에서도 일치한 결과를 보였다. 학습몰입과 진로적응력 간 정적상관을 보인 결과는 대학생 대상의 Jang [19]과 Bae와 Park [31]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세 변인들 간 상관관계 연구가 간호대학생에서는 매우 미흡하였으나 일반 대학생 대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지지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삶에 긍정적 기대가 높은 간호대학생이 자신의 진로발달에 대한 기대도 긍정적이고, 수업 및 학습과 관련된 활동에 몰입을 잘하는 간호대학생이 자신의 진로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수업과 학습활동에도 집중하게 되므로, 자신의 진로발달에 필요한 상황과 환경에 더 잘 적응하고 대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Baron과 Kenny [27]의 매개효과 검증에 위한 3단계 분석 절차에 따른 변인들 간 관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낙관성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낙관성은 학습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 대상의 Kim과 Lee [11]의 연구와 일치하여 낙관적 성향이 강한 간호대학생일수록 학습에의 몰입도가 높다는 본 연구결과는 지지되었다. 또한, 청소년 대상의 Kwon [28]의 연구도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고, 낙관성은 개인의 성격 특질로 긍정심리자본의 구성 요소임을 고려할 때 긍정심리자본이 학습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Oh와 Kim [32]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하였다.

둘째, 낙관성이 진로적응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낙관성은 진로적응력에 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는데 이는 대학생 대상인 Yoo와 Lee [7], Song과 Lee [29], Han [30]의 연구와 일치하였고, Jeong [6]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간호대학생 연구와의 비교 고찰은 현재 수행된 연구가 없어 제한적이다. 다만, 간호대학생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 같은 진로발달 변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

었고[33,34] 낙관성이 긍정심리자본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이므로 낙관성이 진로발달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긍정심리자본의 하부요인별 결과가 모두 동일할 것이라는 확대 해석의 위험성이 있고 간호대학생에서 낙관성이 진로적응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 없으므로 본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도 확보를 위해 두 변인 간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낙관성과 진로적응력 사이 학습몰입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면, 학습몰입은 낙관성과 진로적응력 사이에서 부분 매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몰입이 개인적 특성인 성장마인드셋과 진로적응력 사이에서 완전매개 효과를 보이는 Jang [19]의 연구와 일부 맥을 같이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 학습몰입은 낙관성과 진로적응력 사이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진로적응력 증진을 위한 고려로 낙관성과 학습몰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낙관성은 개인의 타고난 성향적 특질이지만 귀인 이론 측면에서 낙관성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자신이 그 일을 해석하는 개인의 방식에 의해서도 결정되기에 상담 및 지도 프로그램을 통해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29]. 학교 내 상담센터와의 유기적 소통을 통해 낙관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학과 내 운영되고 있는 교과외 프로그램에 낙관성 증진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겠다. 또한, 학생 상담 및 지도 시 학업과 진로 관련한 일련의 사건(상황)들에 대해 학생 자신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낙관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학습몰입은 간호대학생 대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자기주도학습이 강력한 예측요인으로 확인되었으므로[35,36] 수업운영 측면에서 자기주도학습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들 즉 운영 교과목의 선정, 운영의 수월성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및 구축 등에 대해 학과 차원에서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또한 대인관계 유능성이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확인되었기에[37], 교수자는 학습 장면에서 팀학습을 구성하여 팀원 간 긍정적이고 친밀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임상실습에서도 실습팀원, 실습기관의 의료인, 환자 및 보호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집단

지도를 통해 심리적인 지지 또는 중재를 제공해야 하겠다.

4.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낙관성과 진로적응력 사이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진로적응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낙관성과 학습몰입, 학습몰입과 진로적응력, 낙관성과 진로적응력은 모두 정적상관을 나타냈고, 낙관성과 학습몰입은 각각 진로적응력에 정적영향을 나타냈으며, 학습몰입은 낙관성과 진로적응력 사이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진로적응력 증진을 위해 낙관성을 촉진시키고 동시에 학습몰입을 촉진시키는 전략 수립이 간호교육현장에서 필요함을 시사한다.

졸업 후 급변하는 의료 환경을 직면하게 될 간호대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잘 대처하면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진로적응력을 증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간호대학생의 진로발달 변인으로서 진로적응력 예측변인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하기에, 간호대학생의 진로적응력의 예측변인으로 낙관성과 학습몰입의 관계를 검증하여, 간호대학생의 진로적응력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일부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에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연구대상자의 확대가 필요하며 연구결과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반복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낙관성과 학습몰입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들이 수행되기를 제언한다.

References

1. K. J. Kim, B. Y. Jang, J. Y. Jung, O. W. Park, "The Coming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HRD Issues for Nurses - Prospects and Challenges -",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Vol.21, No.3 pp. 137-159, (2018).
2. S. Y. Youn, C. S. Ha, "The Relations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Career Adaptability among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8, No.6 pp. 239-256, (2017).
3. M. L. Savickas, "Career adaptability: An integrative construct for life-span, life-space theory",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45, No.3 pp. 247-259, (1997).
4. C. W. Rudolph, K. N. Lavigne, H. Zacher, "Career adaptability: A meta-analysis of relationships with measures of adaptivity, adapting responses, and adaptation resul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98, pp. 17-34, (1988).
5. M. F. Scheier, C. S. Carver, "Effects of optimism 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being: Theoretical overview and empirical updat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Vol.16, No.2 pp. 201-228, (1992).
6. E. I. Jeong, "Mediating Effects of Everyday Creativity Between Grit, Optimism and College Students' Career Adaptability",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Vol.19, No.2 pp. 23-47, (2019).
7. K. E. Yoo, K. H. Lee, "The Influence of Optimism on Occupational Engagement : Testing the Mediated Moderation Effect of Career Adaptability and Illusion of Control",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5, No.1 pp. 52-58, (2015).
8. H. N. Lee, "The influencing factors of Optimism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Depression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11 pp. 177-185, (2016).
9. E. Y. Kim, K. S. Lim, "The Effect of Stress on the Happiness Index of Nursing College Students :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Optimism",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5, No.12 pp. 381-391,

- (2017).
10. S. H. Byun, H. J. Park, "The Relationship of Life Stress, Anger, and Optimism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8, No.12 pp. 150-160, (2018).
 11. Y. S. Kim, K. S. Lee, "The mediating effect of optimism between grit and learning flow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7, No.2 pp. 144-151, (2022).
 12.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Handbook of the nursing education accreditation for the first and second half of 2023*,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pp. 3-6, (2023).
 13. Y. Jung, J. Lee, "Learning engagement and persistence in massive open online courses (MOOCs)", *Computers & Education*, Vol.122, pp. 9-22, (2018).
 14. S. Y. Han,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Smart Phone Addiction, Learning-Flow, and Learning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5, No.12 pp. 987-1003, (2015).
 15. K. Park,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Metacognition, Learning Flow,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who studied off-line, on line class in COVID-19 pandemic situation",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3, No.12 pp. 205-213, (2023).
 16. E. Y. Chin, C. H. Jung, "The Effect of Mental Well-being, Professor Trust, and Learning Flow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Health & Welfare*, Vol.21, No.1 pp. 151-176, (2020).
 17. M. S. Kang, E. R. Bang, "The Analysis on the Causal Model between Self-directedness, Learning Flow, Career Decision and Self-efficacy,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of Undergraduat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Vol.20, No.4 pp. 443-467, (2014).
 18. Y. J. Song, G. P. Cho,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Learning Flow on Thei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5, No.4 pp. 355-374, (2015).
 19. W. J. Jang, "A Study on the Influence of Growth Mindset of University Students on Career Adaptability: Testing the Mediation Effect of Learning",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Vol.21, No.9 pp. 1-9, (2023).
 20. E. J. Park, G. S. Jeong,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Emotion Intelligence and Learning Flow on Career Stres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Vol.4, No.1 pp. 65-72, (2016).
 21. M. Y. Jang, H. K. kong, E. J. Heo,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Self-determination Theory, Career Self-efficacy and Learning Flow",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21, No.9 pp. 1-9, (2023).
 22. M. F. Scheier, C. S. Carver, M. W. Bridges, "Distinguishing optimism from neuroticism (and trait anxiety, self-mastery, and self-esteem): a reevaluation of the Life Orient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7, No.6 pp. 1063-1078, (1994).
 23. S. K. Yoo, H. N. Jo, "Difference in Interpersonal Schemas According to the Level of Optimism",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15, No.3 pp. 567-580, (2003).
 24. A. Y. Kim, H. Y. Tack, C. H. Lee,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learning flow scale for adul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24, No.1 pp. 39-59, (2010).

25. M. L. Savickas, E. J. Porfeli, "Career Adapt-Abilities Scale: Construction, reliability, and measurement equivalence across 13 countri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80, No.3 pp. 661-673, (2012).
26. J. E. Jeong, *The Casual Relationship of Undergraduate Students' Career Adaptability,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Self-Directed Learning*.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3).
27. R. M. Baron,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di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 1173-1182, (1986).
28. S. J. Kwon, "The Effect of Adolescent Optimism on Learning Commitment: The Doubl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Growth Mindse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9, No.11 pp. 589-615, (2022).
29. E. Y. Son, S. H. Lee, "The Effects of Optimism on Career Decision Scale and Career Adaptability of College Students -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and career barrier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5, No.3 pp. 181-199, (2012).
30. J. W. Han, "The Influence of Optimism and Depression on Career Adaptability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Secretarial Studies - The Mediator Effect of Cognitive Flexibility", *Journal of Secretarial Studies*, Vol.26, No.2 pp. 5-30, (2017).
31. Y. J. Bae, S. H. Park,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Adaptation, Self-Leadership, Learning Commitment, and Career Adaptation",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9, No.6 pp. 104-111, (2019).
32. J. H. Oh, J. S. Kim, "The Influence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elf-Directed Learning and Social Support on Learning Flow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0, No.23 pp. 1021-1037, (2020).
33. I. S. Park, S. S. Ahn, "A Study on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the career maturity: Focusing on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9, No.2 pp. 27-53, (2019).
34. H. Jeong, M. K. Cho, "The Influence of Grit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3, No.1 pp. 467-475, (2022).
35. E. A. Kim, M. S. Kim, "The Mediating Effect of College Adjust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Learning Flow among First Yea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8, No.6 pp. 3409-3422, (2016).
36. J. H. Oh, J. S. Kim, "Influence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elf-Directed Learning and Social Support on Learning Flow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0, No.23 pp. 1021-1037, (2020).
37. J. H. Han, "Effects of Problem Solving Confidence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n Learning Flow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0, No.21 pp. 1103-1116, (2020).